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은기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aver.com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주제로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2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됐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한 올해 행사는 강한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미래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군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였다. 특히 미군 전력이 참가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국군 원로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되살려 행사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한미 군 지휘부, 강군 육성 유공 장병, 사관생도·후보생들과 동반 입장하며 시작했다. 육군 아미타이거 대대장과 DMZ 작전전망, 해군 코로나19 극복 유공자, 공군 KF-21 조종사, 해병대 재해·재난 극복 유공자 등 전·후방 각지에서 작전태세를 유지하거나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온 장병들이 모습을 보였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해병대 1기 이봉식 용과 K9 자주포를 개발한 고(故) 김동수 대령의 아들이자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근무 중인 김상만 박사도 윤 대통령과 함께 입장했다.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군의 위용을 선보이는 각종 시범과 공중전력의 비행이었다. 연합·합동 고공 강하에서는 육·해·공군·해병대와 미군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특수전요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메시지를 표현하며 행사장에 낙하했다.

이들은 전술 강하부터 급속강하, 공중이동, 현수막·깃발 강하, 다이아몬드 대형 등 고난도 기술을 해내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공중전력 시연은 웅장한 울림을 전하며 군의 확고한 대한민국 수호 의지를 보여줬다. AH-64E 아파치를 선두로 KUH-1 수리온, CH-47 시누크, UH-60 블랙호크, LYNX(링스), MUH-1 마린온 등 육·해군, 해병대 소속 23대 헬기가 참석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중 아파치는 저공에서 급강하·급선회 기동을 비롯한 7개 전술기동을 하며 지켜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어서 우리 군의 정찰자산인 E-737 항공통제기와 P-3 해상초계기가 주한미군의 A-10 공격기와 대형을 이루며 행사장 상공을 갈랐다. 뒤따라 F-15K, F-35A, KF-16, F-5, FA-50, 미 F-16 전투기 등도 오색 연기를 내뿜으며 기동했다. 아울러 축하비행에 나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기동으로 파란 하늘에 태극문양을 수놓았다.

각 군 태권도 시범단과 특수부대 장병들로 이뤄진 합동 특공무술팀의 실전적 전투 기술 시범은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들은 비장한 함성으로 74주년 국군의 날의 의미를 담은 74개 품새, 맨손과 대검을 이용한 실전 겨루기, 위력·특수·연속 격파기술 등을 시범 보이며 우리 군의 강인함을 뽐냈다.

행사는 모든 장병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한다’는 국군의 사명을 외치고, 강군 건설의 결의를 다짐하며 마무리됐다.//

KF-21 최초 비행 성공 기념행사

공군3훈련비행단(3훈비)에서는 9월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보라매 최초 비행 성공 축하 기념행사가 거행됐다.

행사에는 이현승 국회 국방위원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역대 공군참모총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무함마드 헤린드라 국방 차관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개발 참여 업체 관계자, 주한 외국 무관, 지역 주민 등이 함께했다. 최초 비행 성공

축하 기념행사는 보라매가 안전한 비행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점에서 지난 7월 19일 공개된 최초 비행과는 차이가 있다.

이날 보라매가 랜딩기어(Landing Gear)를 접고 비행한 것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위해서다. 그동안 보라매가 랜딩기어를 접고 비행한 모습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초 비행 성공 기념



행사는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동시에 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해 본격적인 성능검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개발과정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행사는 사전 공연, 개식 선언, 현장 중계 영상 시청, 국민의례, 경과 보고, 비행 브리핑, 보라매 이륙, 기념사, 보라매 착륙, 조종사 소개 및 비행 보고,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KB국민은행, 공군발전협회에 발전기금 전달

KB국민은행 임원진(국군마케팅부 부장 박병진) 5명은 7월 18일 공군발전협회를 방문하여 김은기 회장 및 임직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박 부장은 “공군발전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목적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공군과 공군발전협회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KB국민은행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후원해주고 있음에 임원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협회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여 국가안보에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공군발전협회 후원단체로서 2018년도에 이어 기부금을 지속 후원해 오고 있다.//

공군전우회 회장단 친선운동(골프대회)

본회 중앙회 회장단 12명은 9월 21일 성남기지 체력단련장에서 친선운동(자체 골프대회)을 했다.

본회 회장단 운영의 활성화와 친목도모를 위한 이날 대회에서 근접상에는 정 수 부회장, 장타상에는 차주성 부회장, 메달리스트에는 고석인 부회장이 각각 차지했다.

김은기 회장은 “회장단의 만남자체가 중요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 전우회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지혜를 모을 수 있다”며 “회장단 모든분들의 힘을 모아 본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22년도(제20회) 공군전우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공군전우회 주관 2022년도(제20회) 친선골프대회가 10월 6일 성남기지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동호회원 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개인전), 2부(단체전)로 구분 개최하였고, 대회 결과 1부 행사에서는 18명의 조별 우승자를 선발 시상하였으며, 근접상에는 학사회 황태인, 장타상에는 해동청회 김근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2부 행사에서는 우승 황성희, 준우승 학사회, 3위는 해동청회가 차지했다.

한편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 많은 협찬을 하였는데 학사회장회 150만원, 황성회 70만원, 원우회, 해동청회 각 60만원, 정우회, 수송회, 시우회, 정통회, 기무회, 방공회에서 각 50만원, 무스탕전우회, 항륙회, 수지회, 조간회에서 각 40만원, 이글회, 관리회, 보급회, 18-20회, 21-23회, 은하회, 군무원회, 청운회에서 각 30만원, 17-20회 20만원 및 전우회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개인후원으로는 이강욱 골프동호회장이 참가상으로 잡곡쌀을 전 참가자에게, 그리고 경품 11점(퍼터1, 골프공 10박스), 해동청회 전홍수 회원이 경품 20점(우산 20개)을 그리고 전우회에서도 경품 10점(벽시계)을 각각 후원하였다.

이번 대회는 모든 참가선수들에게 많은 시상품과 참가상품 제공 및 경품추첨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동시에 골프동호회 22개단체 대표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공군발전협회 신임 연구위원 위촉

공군발전협회 김은기 회장은 7월 27일 발전협회 부설 항공우주력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김종은(예 대령, 공사 35기), 박찬규(예 대령, 공사 35기), 이장룡(예 준장, 공사 35기) 및 정광선(예 준장, 공사 32기)회원을 신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권기범(예 중령, 공사 44기), 김광진(예 준장, 공사 37기), 김유현(예 대령, 공사 33기), 임종준(예 대령, 공사 28기), 정연우(예 대령, 공사 35기), 정희주(예 대령, 공사 33기), 조승균(예 대령, 공사 31기) 및 현인하(예 대령, 공사 38기) 회원을 신임



연구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항공우주력연구원 전체 연구위원은 2022년 9월 30일 현재 70명이 위촉되어 있다.//

공군 ROTC회장단, 후보생에 장학증서 전달

공군ROTC장교회(회장 김형구) 회장단 14명은 7월 22일 공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하여 사령관과 환담을 나누고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에서 하계 임영훈련중인 ROTC 61기 및 62기 후보생들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장교대대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단은 재단법인ROTC 장학재단이 수여하는 장학증서 3명과 공군 ROTC장교회가 수여하는 장학증서 3명 등



총 6명(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출신 각 2명씩)의 ROTC후보생에게 전달했다.//

공군항공과 총동창회, 16비에 위문금

공군항공과학교등학교(항공과) 총동창회는 10월 4일 공군16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영공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사를 표하고, 위문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진홍(예소장, 항공과 10기)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4명의 방문단은 16비단장 등 부대 지휘부와 대담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 수호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항공과 총동창회는 지난 201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공군 순직 조종사 유자녀를 지원하는 하늘사랑장학재단에 각각 1000만 원을 쾌척하는 등 후배



장병들을 위한 기부 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있다.//

효도 고타로 주한일본 공군무관 내방

주한일본 공군무관인 효도 고타로 공군 대령이 7월 13일 인사차 본회를 방문하여 김은기 회장 및 임직원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환담은 주로 한일공군 예비역단체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올해 11월초 공군전우회 회장단의 일본 츠바사회 방문계획 추진건에 대해 한일간 상호 협조할 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김은기 회장은 효도 고타로 대령에게 “한일간, 특히 한국 공군전우회와 일본 츠



바사회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교량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서관(원우회)전우회,공군 교육사 및 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 방문

부서관(원우회) 차주성 회장 외 2명은 9월 2일 공군교육사령부 주관의 243기 부서관 임관식에 참석하여 박준서 신임 하사에게 공군전우회 중앙회회장상인 보라매상을 전수하고 신임 부서관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을 방문하여 지휘관을 예방, 부대현황을 청취하고 환담을 나누는 후 부서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대전지부

대전지부(지부장 김호중)는 7월 21일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고려 회관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단체 모임을 가지지 못했던 터라 모두들 정겹게 환담을 나누었으며 특히 모든 회원들이 코로나 팬데믹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건 보라매 전우애였음을 다시금 상기하였다.

참석자 모두는 활발한 지부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전우애 함양을 위해 각자 합심 노력하기로 다짐하며 모임을 마쳤다//



이희근 前 공군참모총장 별세

제15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이희근 예비역 대장이 10월 1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1951년 공군사관학교 1기로 임관해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차장 등 공군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참모총장 재임기간 중에는 한국군 전투력 증강계획인 1차 율곡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군의 전력증강에 이바지했다.

고인의 장례식은 공군장으로 치러졌으며, 영결식은 12일 오전 9시 서울성모병원 영결식장에서 열렸으며, 같은 날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원주지회

원주지회(지회장 김구식)는 7월 14일 지회원 43명이 청와대와 경복궁을 견학함으로써 회원간 친목도모 및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8월 월례회의는 8월 11일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9월 월례회의는 9월 8일 39명이 참석하여 주요활동



사항을 전파하고 지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지부

인천지부 (지부장 최응주)는 7월 21일 동인천광장에서 지부회원 및 가족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거 노인 약 100여명을 초청하여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인천지부의 위상을 제고했다//



수원지회

수원지회(지회장 송요정)는 7월 25일과 8월 1일 2회에 걸쳐 지역사회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770명분을 전달했다.

2회의 봉사활동에는 지회 산하 보라매봉사단원 50여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9월6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추석맞이 명절 음식나눔 행사에 지회원 10여명이 참가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미 LA지회

미 LA지회(지회장 심인태)는 공군창설 73주년을 맞아 9월 30일 지회 정기모임을 JJ Grand Hotel에서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오랫동안 정기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이번에 공군창설 기념일을 맞아 정기모임을 갖고 그동안의 안부와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의 소식을 서로 전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LA지회는 1968년 창립되어 회원간 친목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기모임에 맞추어 중앙회 김은기 회장은 격려사를 보내주었다//

창원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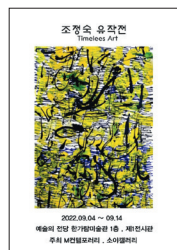
창원지회(지회장 설병철)는 7월 12일 7월 월례회 및 임시총회를 시내 음식점에서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설 회장은 "회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회장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회 활성화와



회원 추가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정숙 화백 유작전



본회 이문호 회원(예 준장, 공사17기, 전 공군전우회 사무총장 및 부회장) 부인이었던 조정숙 화백이 지난해 전시회를 준비하다 갑자기 세

상을 떠난 후 고인의 유작 전시회가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전시회에서는 작가가 평생에 걸쳐 완성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많은 동료 화가 및 지인들이 관람하여 엿볼 수 있었다//

김완용 회원, 제7시집 '길을 묻다' 발간



본회 김완용(예 준위, 준사관 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 회장) 회원이 9월15일 본인의 제7시집 '길을 묻다'를 발간했다.

김 회원은 36년 2개월의 군 생활 중에도 문학에 조예가 깊어 한국문인협회 회원

으로 활동하면서 충효백일장 일반부 금상을 수상하는 등 시 부문에서 다수의 입상을 하였으며, 전역 후 62세에 만학도로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하여 문학을 전공한 후 현재 (사)한국공무원문학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회원은 그간 "들녘에 부는 바람" "그리움은 쪽배타고" "봄빛 여울" 등 6편의 시집에 이어 제7집을 발간했다//

강구영 회원, KAI 사장 취임



본회 강구영 회원(예 중장, 공사30기, 전 본회부회장)이 9월 6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에 취임했다.

강 사장은 이날 0시 경남 사천 본사로 출

근해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을 점검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았다. 강 사장은 "일거리·팔거리·막거리를 강조하며, 향후 5년간 1조 5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공군 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공군 2022년 전반기 지휘관회의

공군은 7월 8일 공군본부에서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2년 전반기 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7월 6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의 내용과 지침을 전파하고, 올해 전반기 업무 성과 분석 및 후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공군본부 주요 지휘관·참모, 독립 전대급 이상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반기 업무 성과 분석에 이어 '공군 인공지능(AI) 추진 현황 및 발전 방향' '우크라이나 사태 전훈 분석'을 주제로 발표·토의를 했으며, '국방혁신 4.0 공군 추



진 계획'도 점검했다. 또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한 뒤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공군, F-35A 첫 연합 비행훈련

한미 공군이 첫 F-35A 스텔스 전투기 연합 비행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전천후 은밀 침투와 정밀타격능력을 갖춰 '보이지 않는 힘'으로 불리는 F-35A는 대표적인 대북 억제 전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훈련은 국내에 F-35A가 도입된 후 최초로 양국의 F-35A가 함께한 연합훈련이다. 한미 공군은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국내 임무 공역에서 5세대 전투기 F-35A를 포함해 다수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비행훈련으로 연합방위 태세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한미는 실질적인 훈련으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F-35A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을 추진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FA-50과 미 공군의 F-35A, F-16 등 총 30여 대의 전력이 출격했다.//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 블랙' 첫 참가

우리 공군이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인 '피치 블랙(Pitch Black)'에 최초로 참가했다. 또 공군 전투기가 처음으로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단독으로 해외훈련에 나섰다. 공군은 "호주 다윈과 앰벌리 기지에서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열흘간 펼쳐진 '2022 피치 블랙' 훈련에 참가했다"며 "이를 위해 6대의 KF-16 전투기 편대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피치 블랙은 호주 공군이 역내 안보와 우방국 간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격년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 훈련이다. 올해는 개최국 호주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10개국에서 100여 대



의 항공전력이 함께했다.

우리 공군은 KF-16 전투기 6대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1대, 13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고 참가국들과 군사협력을 증진했다.//

공군 블랙이글스, 4개국서 에어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 90여 일의 해외 에어쇼와 페리(Ferry)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8월 20일 모(母)기지인 원주기지에 무사히 안착했다. 공군은 이날 "블랙이글스가 영국·폴란드·이집트·필리핀에서 군사외교 및 방산협력을 위한 에어쇼 임무를 마치고 복귀했다"며 "블랙이글스는 수준 높은 비행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 공군력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군사외교 사절로서 우호 증진 및 방산협력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블랙이글스는 7월9일 영국 사우스포트 에어쇼를 시작으로 리아트(RIAT·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 판버러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거머쥐면서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영국을 떠나 폴란드에 도착한 블랙이글스는 7월 28일 폴란드 뎡브린 기지에서 에어



쇼를 선보였다. 다음 날에는 폴란드 특수비행팀 오리크(Orlik)와 우정비행으로 양국 공군의 우호를 증진했다. 그리고 8월 3일 이집트에 도착한 블랙이글스는 기자 피라미드 지구(9 Pyramids) 상공에 태극마크를 수놓았다. 이어 필리핀에 도착한 8월13일에는 FA-50PH 4대와 우정비행을, 15일에는 호세 파우스티노 필리핀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 내에서 에어쇼를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한·페루 공군 대 공군회의

공군은 9월19일 윤병호 참모차장 주관으로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카를로스 엔리케 차베스 카테리아노(Carlos Enrique Chavez Cateriano) 공군참모장 등 페루 공군대표단과 공군 대 공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FA-50 전투기 등 국산 항공기와 공군 비행교육체계 우수성 소개 △KT-1 계열 항공기 운영 및 비행교육 노하우 공유 △KT-1P 항공기 군사협력 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또 군사교육 교류 활성화, 군사협력 확대 등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페루 공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KT-1P 항공기 20대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공군은 2014년 공군 대 공군회의를 개설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남미 국가 중 페루가 유일하다.//

한미공군, KF-16·F-16CM 참가 쌍매훈련

공군20전투비행단(20전비) 120전투비행대대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 공군51전투비행단(미 51비) 36대대와 22-7차 쌍매훈련(Buddy Wing)을 실시했다. 쌍매훈련은 한미 공군이 1997년부터 함께 실시해 온 대대급 연합훈련이다. 두 나라 조종사들이 서로의 기지에 전개해 공중작전과 전술을 공유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쌍매훈련은 한미 공군이 연 단위로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 편대급 훈련과 달리 대대급 부대가 같은 훈련 방향과 양상을 수시로 펼치며 실전 능력을 키우는 장점이 있



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훈련과 토의를 거치며 두 나라 조종사들의 우의를 다지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이바지하는 효과 역시 적지 않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8월 23일 시작된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 KF-16 전투기와 미 공군 F-16CM 전투기가 참가했다.//

공군·한국공항공사, R&D 콘퍼런스

공군은 9월 22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제6회 공항건설 및 유지관리 R&D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11년부터 해당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민·관·군 정보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공항건설 및 스마트 공항 운영'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는 민·관·군 공항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윤병호 공군참모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공항공사 이미에 부사장 환영사, 주제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는 '미래지향적 공항건설 발전 방향'과 '4차 산업 활용 SMART 공항 운영'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항안전 및 환경정책 △미래 공항 방호 시설 건설 등 공항 안전관리 분야와 사물인터넷(IoT), 드론 맵핑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공항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민 경희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에서는 김형렬(대령) 공군본부 공병계획과장, 최준용 한국공항공사 건설사업실장 등이 '4차 산업 활용 미래 공항 건설 및 운영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제 전자전 콘퍼런스 개최

공군은 7월 7일 공군호텔에서 '2022 국제 전자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원활한 항공 우주작전을 위한 전자기 스펙트럼 우세 달성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전자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열린 회의에는 관련 국제행사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항공우주 전자전을 통한 전자기 스펙트럼 우세 달성'을 주제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개회사,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환영사, 로버트슨 국제전자전협회장의 초청연설, 기조연설,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최현국(예공군중장) 한국항공대 교수가 '한국군의 사



이버전, 전자전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과 마크 포니어 국제전자전협회 이사는 '전자전 전투관리-전자기 스펙트럼 관점에서'를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관계자도 각각 '합성개구레이다(SAR) 대응 재밍 기술' '신호정보(SIGINT) 위성체계 운용 동향 및 기술 발전 추세'를 소개했다.//